

큰 짐 덜어낸 힐러리... '이메일 파문' 종료

FBI "법위반 고의성 없어"

법무부 불기소 권고 결론

트럼프 "조작된 수사" 비판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최대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날 이메일 스캔들 사건 수사를 종료하면서 불기소 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서버로 어수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면서도 '고의적 법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불기소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FBI 권고를 토대로 조만간 불기소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이메일 스캔들 수사는 공식 종료된다.

클린턴 전 장관으로서는 이달 하순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발목을 잡아 온 이메일 스캔들의 족쇄를 벗어낸 셈이다. 만약 FBI가 법무부에 기소를 권고했다면 클린턴 전 장관의 대선 후보 자격 유지 자체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2009년부터 4년간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무부 관용 이메일 계정 대신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연방법 위반 논란이 일어난 사건으로, 지난해 3월 2일 뉴욕타임스(NYT)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지금까지 클린턴 전 장관을 괴롭혔다.



“확실히 지원해줄게”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첫 지원유세를 했다. /연합뉴스

경선 내내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공화당 주자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고, 이것이 클린턴 전 장관 '신뢰 하락'의 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문고리 권력으로 통하는 휴마 에버딘 등 최측근들이 줄줄이 FBI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클린턴 전 장관 자신도 최근 3시간30분 동안 직접 조사를 받아야 했다.

클린턴 전 장관이 비록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지만, 논란 자체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가운데 52다발 110건은 당시 기준으로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 중 8개 다발은 1급 비밀정보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이메일에 당시에는 기밀로 분류된 정보가 없었다는 클린턴 전 장관의 그간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주장해 온 공화당과 트럼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본선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 직후 트위터에서 "(사법)시스템이 조작됐다"면서

"퍼트레이어스는 그보다 훨씬 덜 한 일로 문제가 됐는데 아주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위원장도 CNN 방송 인터뷰에서 코미 국장의 발표만 보면 충분히 기소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앞으로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에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점, 그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의 최근 의심스러운 비밀 회동 등을 고리로 이메일 스캔들을 계속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탈EU 바람 끝난 게 아니다

10월 2일 헝가리·오스트리아

EU 난민정책 쟁점 투표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이탈) 국민투표 가결로 한 차례 타격을 받은 유럽연합(EU)이 올가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는 10월 2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에서 치르는 투표가 EU의 정치적 근간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관측했다.

EU의 난민 할당제에 반대했던 동유럽 국가 중 하나인 헝가리는 EU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난민정책을 심판하는 국민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헝가리 국회의 동의 없이 헝가리 국민이 아닌 사람이 헝가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EU에 부여하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EU는 독일 주도로 난민 16만 명을 각 회원국에 분산 배치하는 계획을 내놓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달 말 EU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정책을 유지할 것"

이라며 "EU가 난민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5월 열린 대통령 결선 투표 때 부재자 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당시 결선 투표에서 녹색당의 지원을 받은 무소속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후보는 반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성향의 노르베르트 호퍼 자유당 후보에 불과 3만863표(득표율 0.6% 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이에 자유당은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이 조기 개봉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현재는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부재자 투표에 부정성이 있었다며 재선거를 치르라고 지난 1일 결정했다.

1차 투표에서 호퍼 후보는 36%를 지지율 얻어 21%에 그친 판데어벨렌 후보를 이긴 데다, 선거 이후 정당 지지율에서도 자유당(34%)이 여당인 사회민주당(24%)을 10% 포인트 차로 앞섰기 때문에 재선거에서 극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다. /연합뉴스

지중해 추락 이집트기 진화 시도 있었다

테러 증거 나오지 않아

지난달 지중해에 추락한 이집트 항공 여객기의 기체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분석 결과 조종사가 사고 직전 기내에서 불을 끄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집트 사고조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사고기의 조종사 음성기록이 담긴 블랙박스를 판독한 결과 추락하기 직전 기내에서 불을 끄려는 시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집트 당국은 여객기가 추락한 직후 테러를 그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으나 배후를 주장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테러 증거도 포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거 있다. 그러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집트항공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 MS804편은 지난 5월18일 이집트인과 프랑스인 승객과 승무원 등 총 66명을 태우고 프랑스 파리에서 이집트 카이로로 가던 중 지중해에 추락했다.

이집트 당국은 지난달 16일과 17일 블랙박스 1개씩을 지중해 해저에서 찾아 거둬들이 뒤 정밀 분석작업을 벌여왔다.

이집트 당국은 여객기가 추락한 직후 테러를 그 주요 원인으로 추정했으나 배후를 주장한 세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테러 증거도 포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때·장소 안 가리는 IS

동남아 무슬림들 긴장

중동에서 세력이 크게 위축된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등 영역확대를 기도하면서 동남아 무슬림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다년간 시리아와 이라크 등지에서 반군 활동을 해 온 자국 출신 IS 조직원들이 국내로 돌아와 폭발물 제조 등 테러 기법을 전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제는 중동의 동남아 출신 IS 조직원들이 귀국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난달 21일 IS가 배포한 선전 동영상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출신 조직원들은 본국에 돌아가 테러를 저지르겠다고 선언했다. IS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담은 별도의 동영상도 공개했다. /연합뉴스



'세계 화약고'에서 소년은 무엇을 빌었을까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슬림이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끝나는 날 열리는 '이드 알피트르' 축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축 4층 상가원룸 매매

전대정문 모아 A.P.T 후문 코너자리

신축 상가원룸 / 3면 대리석 시공 / 코너자리

1층 (커피숍)
2층~3층 (원룸 6개, 투룸2개)
4층 (주택) 30평
화장실2개, 방3개, 다용도실

★ 4층(주택) 거주 하면서 월수익 350만!!

▣ 매가 → 6억 8천만 (웅1억5천)

010-6670-9800 010-7384-7800

평택 토지 (토지, 개발전문)

★ 삼성전자 120평 ★
평택 신도시 530만평

평택항 현대지구 70만평(여의도크기) 미군기지 이전

① 평택시 고덕면 방충리 (교덕교차로 7분) 120평 (평당 200만)
▶ 매가 2억4천만

②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포승공단 옆) 922평 (평당 30만원)
▶ 매가 2억7천600만

③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포승공단 5분) 492평 (평당 30만원)
▶ 매가 1억4천7백60만

④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 (교덕 신도시 10분 613평 (평당 95만)
▶ 매가 5억8천235만

⑤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교덕 신도시 5분) 2,233평 (평당 35만)
▶ 매가 7억8천만

평택 토지 전문 010-6832-9700 / 062-511-7800